



책,

갈 수 없는

세계로의

신비한 여행

( 책 이 여행 보다 좋은 이유 )

오늘도 지독한 역마살이 내 등을 떠민다. 말이 좋아 여행가이지 실상은 반 백수이기에 나의 잦은 가출은 용인되는 것이다. 벌써 이 짓을 나는 8년째 꼬박 치러내고 있다. 무릇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여행이란 어쩔 수 없이 자본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내 발품과 눈요기에 적잖은 자금이 들어가고, 그러다보니 언제나 글꼴을 팔아 발품에 대는 일이 비밀비재하였다. 혹자는 그런 짓을 왜 때려치우지 않느냐고, 군소리를 늘어놓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결단코 아직까지는 이 짓을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코딱지만큼도 없다.

여행이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다양한 표정과 몸짓, 관습과 언어, 역사와 문화, 풍경과 풍물의 속내를 보고, 느끼고, 담아오는, 이른바 세계에 대한 자신의 적극적 투신이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은 거대한 도서관과 같아서 낯설고 비밀스런 책들로 가득차 있다. 그리하여 여행이란 우리가 읽지 못한 그 새로운 책들과 만나는 일이다. 그것을 읽느냐 마느냐는 순전히 여행자의 몫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두 여행가가 될 수는 없는 일이며, 실제로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 훨씬 더 많다. 현실 속에서의 논리화된 책은 바로 그것을 대신한다. 우리가 갈 수 없는, 혹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여행을 책이 대신해 주는 것이다.

언젠가 나는 후지와라 신야의 《티베트 방랑》을 통해 가지 못한 티베트를 만난 적이 있다. 거기에 나온 이런 구절이 생각난다. “어디로 가십니까? (중략) 사내 는 갑자기 경 읽기를 멈추고 내 뒤의 길 끝 쪽을 손가락

으로 가리켰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끝없이 돌맹이가 구르는 들판, 저쪽 멀리 벌거벗은 산봉우리들……. 저기에는 뭐가 있나요? 아무 것도 없소.” 여행을 가셔도 만나지 못했을 문장과 풍경이 거기 있었던 것이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그의 《영혼의 자서전》이란 책에서 “우리들을 빚어낸 흙과 우리 영혼 사이에는 신비한 접촉과 이해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또 인간의 일생을 두고 이런 말도 했다. “짙막한 섬광이지만, 충분하다”고. 나는 그의 책에서 ‘신비한 접촉’에 대해 오랫동안 숙고해야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신비에 대한 이야기도 톰 브라운의 《자연에 미친 사람》에서 읽을 수 있었다. “신비는 빵 부스러기로 이어진 길처럼 남아 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자취의 주인을 향한 길을 야금야금 다 먹어치우기 전에는 그 신비는 우리 속에, 내내 우리의 일부로 있다. 우리가 먹어치운 모든 신비의 자취들은 우리 자신의 자취 속으로 흡아 들어간다. (중략) 인간은 자기 앞의 신비들을 먹으면서 세상을 사는 법이다.” 책을 통해 나는 이 은밀한 세계의 신비를 훑쳐보았다. 책은 나에게 아득한 세계로 통하는 놀라운 이동로를 열어 주었고, 그 속에서 하늘과 땅과 사람과 또 다른 작은 생명체의 경이와 경외를 실감케 해주었다.

일찍이 내가 책 속의 풍경을 접해 보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는 이 땅의 속살과 태깅과 노래로부터 어떤 힌트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조셉 캠벨의 《세계의 영웅신화》에서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영웅의 여정을 만났고, 레비 스트로스의 《슬픈 열대》에서는 문명의 방식으로, 혹은 ‘현대’라는 시간적 시각으로 지구의 한 귀퉁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또 다른 부족성을 재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웠다.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퍼나르고, 숙제도 하고 여행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떠돌며 얻는 지식과 정보란 검증되지 않은 독을 품은 교양이며, 왜곡되고 주관적인 요약문들이기 쉽다. 그럼에도 책으로 떠나야 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다. 창조적인 지식생산은 오롯이 책을 읽는 자의 몫이다. 하여 어떤 세계를 여행하며 아는 만큼 보게 되든, 보는 만큼 알게 되든, 그 가치관의 뿌리와 지적인 체계화도 이미 오래 전부터 책이 열어준 길이다. **출처**

글 | 이용한(시인, 여행전문작가)

나는 보시다시피 게임을 전문으로 다루는 두 권의 잡지에서 편집장 일을 맡고 있다. 그러나 난 게임보다는 독서를 많이 즐긴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우리 잡지를 보는 다수의 독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필자는 한 달에 4권 정도 책을 읽지만 정작 게임은 한두 번, 그것도 업무 때문에 즐길 때가 많다. 내가 게임보다 독서가 좋은 이유는 소위 게임을 좋아할 나이가 아니어서, 혹은 책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은 아니다. 실제로 책이 좋으며 게임과는 비교할 것이 못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책은 추억이란 것이 있다. 그것이 아름다운 감동이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든 용서치 못할 반감이든 말이다. 이러한 추억은 책장을 덮는 순간 본격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이 기억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책의 내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좋은 책은 단 한 번 읽음으로 해서 사람의 인생까지 바꾸는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 그러나 게임에는 남는 것이 없다. 게임을 끝내는 순간, 그 경험이 좋았건 나빴건 우리는 더 이상 추억을 느끼진 못한다.

둘째로,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무한한 상상력을 드높일 수 있다. 상상력은 우리의 뇌에서 척추, 그리

고 온몸의 교감신경까지 자극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상력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폭을 한없이 넓게 유도해 준다. 반면 게임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즉 우리는 게임을 하면서 게임 제작자가 만든 그래픽과 사운드, 그리고 제작자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따라 마치 종이인형처럼 따라가게 된다. 물론 게임 역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인간의 사고를 폭넓게 배양해 준다. 그러나 게임이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게임은 시각과 청각이라는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셋째로, 책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자유롭다. 즉 내가 원한다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친구로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게임은 어디 그러한가? 게임을 하려고 하면 게임장이나, 컴퓨터 혹은 게임기가 있는 장소여야만 한다. 물론 요새는 가벼운 휴대용 게임기가 등장해 이동성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책에 비하면 그어찌 비교할 상대인가.

넷째로, 책은 가격이 저렴해 누구든지 접할 수가 있다. 대개 책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특정한 도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1만 원대이다. 이는 하루에 약 300원씩만 절약하면 얼마든지 한 달 동안 읽고 싶은 책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게임을 보자. 요즘 유행하는 온라인 게임의 경우 한 달에만 3만 원 돈이다. 가격이 저렴한 패키지 게임을 보자. 보통 최신작은 5~6만 원선이다. 더욱이 비용이 많이 드는 콘솔 게임이라면 한 타이틀에 7~8만 원, 거기다가 게임기를 구입하려면 20만 원은 족히 들여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비싸게 돈을 들여도 게임은 끝을 보고 나면 다시 하고 싶은 욕망이 사라진다. 그러나 책은 어떤가? 같은 책이라도 어제 읽었을 때하고 오늘, 그리고 내일 읽을 때, 그 때마다 다가오는 느낌이 달라진다. 책은 무한한 상상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로 필자는 게임보다 책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필자는 솔직히 고백하고 싶다. 어떻게 책과 게임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는 마치 바다와 금붕어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 바다가 모든 물고기를 포함하는 것처럼 책은 모든 문화를 포괄한다. 책은 게임을 포괄한다. 아무리 잘 만든 게임이라도 책이 주는 지식과 감동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 아무리 뛰어난 게임 시나리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책의 지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필자가 게임보다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글 | 최세준(월간 <피씨파워진>, <넷파워> 편집장)

게임과 책은

( 책이 게임보다 좋은 이유 )

2차원과 4차원의 차이



원고청탁을 받으면서 '책이랑 살자'라는 기획이 참 재미 있다고 했더니 '섹스보다 책이 좋은 이유'를 써달란다.

섹스보다 책이 좋다? 이 비교는 사실 정말 무의미한 것이다. 마음의 양식이 되는 책과, 양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지없이 몸의 즐거움과 위안이 되는 섹스를 어찌 비교한단 말인가. 단순무식하게 말하면 책은 이성이고 섹스는 본능이다. 밥 먹고 자는 것을 좋다 싫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섹스는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다.

하더라도 나는 책 없는 인생 또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잠시 생각해도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릴 만큼 책 없는 인생은 참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책에 대해 일방적이고 광적이기까지 한 나의 애착은 꽤 오래된 것이

그리고 즐거움과 위안, 건강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섹스가

(책이 섹스보다 좋은 이유)



일러스트레이션 신철우

다. 오죽하면 어릴 적 별명이 '또야또' 일 정도였다. 뭐가 '또'였나면 어딜 가나 그곳 서가 앞에 자리 잡고 앉아 책을 펴들고 읽거나 밀려갈 책을 고르는 것이 내 어릴 적 모습이었던 탓이다.

어떤 시인은 '자신을 키운 것이 8할이 바람'이라고 하지만, 난 나를 키운 것의 8할이 책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간 읽어온 책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내가 인생에 대해 조금이라도 성찰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순전히 책의 힘이다. 책이 먼저 나를 찾지 않았지만 내가 찾지만 하면 언제나 내게 와서 이야기를 풀어 놓았다.

나는 어린 시절 아버지께 선물받았던 동화책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그 유명한 계몽사 50권짜리 빨간 동화책), 30년이 넘도록 그 책들을 끌고 다닌 이유는 '내가 읽은 동화책을 내 아이에게도 읽고 싶다'는 순전히 낭만적인 이유에서였지만, 유감스럽게도 내 아이들은 그 책들을 잘 보지 않는다. 지금보다 문장도 길고, 그림도 예쁘지 않을 뿐 아니라 너무 오래되어서 책장이 삭아 부스러질 때도 있다는 이유이다. 아이들은 보지 않지만 난 요즘도 마음이 쉬고 싶을 때 '행복한 왕자'나 '인어공주' '보리와 임금님' 속의 주인공들과 만난다. 그리고 이제는 나보다 훨씬 어린 그 주인공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또 살아온 사랑과 인생에 대해 말해주곤 한다. 아주 오래된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듯이...

그래서 '섹스가 좋으나, 책이 좋으나' 묻는 질문은 마치 '어릴 적부터의 친구가 좋으나, 지금 애인이 좋으나' 혹은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좋으나, 아빠가 좋으나'를 묻는 것처럼 대답이 곤혹스러운 질문과 같다.

요즘같이 더운 여름이라면 특히 '당연히 책이 더 좋다'고 대답할지 모르겠다. 만지고, 껴안고, 키스하고, '사랑한다'고 속삭이고, '어찌면 이렇게 예쁘냐'고 살을 부비는 섹스가 아무리 황홀한 살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피부가 고와지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자존감을 높이고, 여성 질내건강과 남성 비뇨기관의 건강을 보증하고 여러 가지 통증을 줄여주고 심지어 오래 살게 해준다고 해도 말이다.

그래도 누군가 다시 '책이 섹스보다 좋은가?' 하는 우문을 한다면? '물론이지' 대답한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너 바보지?' 할지라도... [출처]

글 | 배정원(행복한 성문화센터www.baejw.com 소장)

인체에 유익한 기氣 책속에 있다



( 책이 드라마 보다 좋은 이유 )

드라마에 미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장래는 사실 어둡다. 물론 드라마로 밥벌이를 하거나, 나이가 들어 이것저것 생에 대한 욕망이 사라져버린 인생이거나, 살림살이 재미가 없는 이죽마라면 상관없다. 하지만 젊은 나이거나 분명한 직업이 있는 사람이 하루에 서너 편씩 드라마를 보고, 어디 가서 앉기만 하면 드라마 얘기 줄줄 꺼내놓고, 텔런트 이름을 영어단어 암기 하듯 꿰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장래는 별로 가망이 없다고 봐야 한다.

왜냐고? 그런 사람들의 첫 번째 위험은 인생에 대한 변별력이 없어져버린다는 데에 있다. 드라마는 드라마고 현실은 현실인데 무슨 말이냐고 불쾌한 항변이 나오겠지만, 앉기만 하면 드라마 타령을 하는 사람과, 입이 열리면 책이나 신문에서 본 뉴스와 상식을 얘기하는 사람과의 인생은 같을 수 없다.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드라마에 빠져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없고, 드라마에 빠져 있는 사람이 책을 읽는 경우를 못 봤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드라마란 책보다 더 나은 훌륭한 드라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3각 4각 러브스토리에 앞뒤가 너무도 분명한 단세포 같은 '3류 드라마'를 지칭한다.

지인의 병문안을 위해 병원에 갔다가 9시가 됐기에 뉴스를 보려고 잠시 자리를 떴다. 그 방에서는 연속극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는 아무 입원실이나 머리를 들이밀고 뉴스를 보려고 한 것인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수십 군데 문 열려 있는 입원실을 기웃거렸지만 어느 곳에서도 뉴스를 보는 방이 없었다. 모두 연속

극 잔치뿐이었다. 소름이 끼쳤다.

그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자면 그들은 모두 심신이 쇠약해져 있는 환자들이라는 점이였다. 기력이 쇠하면 책을 읽을 수가 없다. 그냥 멍하게 눈만 돌리게 된다. 심신이 건강한 사람이 드라마광이 되지 못하는 이유다. 주변에서도 보면 그걸 쉽사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병실을 둘러보니 희망이 보였다. 많은 환자분들은 베개 옆에 몇 권씩의 책을 소중히 두고 있었던 것이다.

좋지 못한 드라마의 폐독은 굉장히 심각하다. 어려서부터 자식에게 대중가요나 뽕짝만 들려주는 부모는 없다. 그래서 생각이 조금만 있는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책을 읽으라고 한다. 서글픈 현상이다. 자녀들에게는 책을 읽어라, TV보지 말아라 하면서 자신은 그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TV가 바보상자라는 말을 1990년대까지도 별로 찬성하지 않았지만 이제 분명히 그것을 이해하겠다. TV에 붙어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두뇌가 나빠진다는 것은 이미 연구결과로 다 밝혀졌다. 하루를 골라 팔이나 대중음악만 진탕 들어보라. 저녁이 되면 심신이 노곤해지고 머리는 혼미해진다. 반대로 클래식을 하루 종일 들어 보라. 오히려 그 반대가 된다. 클래식에는 인체에 유익한 기氣가 나온다. TV에서는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 책에서는 분명히 나온다. 방송작가들이 탈고를 하고 지쳐 있을 때 무슨 일을 하겠는가? 밀린 비디오를 보거나 TV 앞으로 올라? 천만에, 책을 찾아든다. 본능적이다. 기를 충전하기 위해서다.

다시 강조하자면 모든 TV드라마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훌륭한 드라마도 있는 만큼 선별하여 한두 프로그램만 보라는 것이다. 가장이 그걸 깨닫고 권고하게 되면 가족들은 따라오게 돼 있다. 사실 본인도 별로 성공한 가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 그것이 인생 아니겠는가. **김남**

글 | 김남(방송작가)

